2026. 4. 27

소비재/플랫폼 Weekly

로레알: 1Q26 실적에서 읽히는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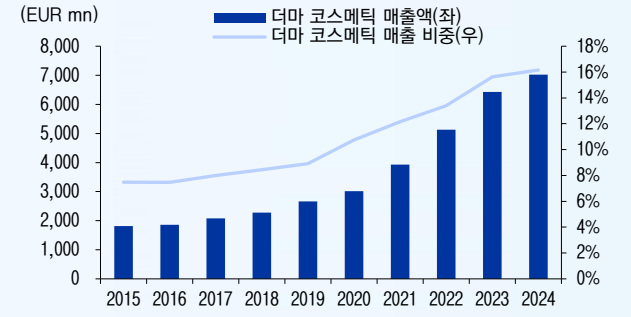
Analyst 오린아 _ 유통/화장품 lina.oh@ls-sec.co.kr

체크해야 할 업종 이슈

- ✓ 로레알, 1Q26 매출액 성장률 YoY 6.7%로 시장 성장 상회
- ✓ 스킨케어 부문은 더마 카테고리가 성장 견인 중, 색조 또한 립 중심의 양호한 실적
- ✓ 유가 상승에 따른 물류 및 원부자재 가격 부담 가능성: 믹스 개선과 효율화 전략으로 방어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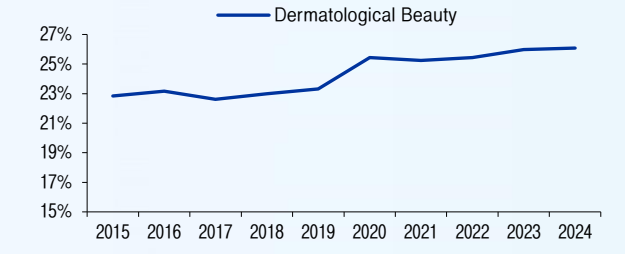
이번주 업종 코멘트/전망

그림1 로레알 더마 코스메틱 부문 매출 비중 추이



자료: L'Oreal,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로레알 더마 부문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L'Oreal, LS증권 리서치센터

더마 카테고리 성과 두드러지는 중

로레알의 1Q26 Like-for-Like 기준 매출 성장률은 +6.7%로 글로벌 뷰티 시장 성장률(약 +3.8~4.0%)을 상회하며 양호한 출발을 기록. 전 지역·전 사업부에서 점유율 확대가 동반된 가운데, 북미는 +7%대 성장으로 최근 2년 내 가장 강한 흐름을 시현했고, 유럽 역시 +4% 내외 성장으로 견조한 소비를 유지. 중국 시장은 +1~2% 성장으로 바닥을 통과하며 안정화 국면에 진입하는 모습. 카테고리별로는 스킨케어가 +4% 수준 성장하는 가운데 Dermatological Beauty 부문이 두자릿수 성장하며 전체 스킨케어 성장을 견인. La Roche-Posay, CeraVe, SkinCeuticals 등 더마 브랜드가 핵심 성장 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스킨케어 내에서도 기능성 및 더마 중심의 수요 집중이 뚜렷. 한편 메이크업에서는 립 제품 및 프래그런스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며 색조 수요가 유지. 특히 유럽 지역에서는 립스틱 효과와 도파민 소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거시 불확실성 환경에서도 기분 전환 목적의 화장품 소비가 지속되는 모습

유가 상승에 따른 마진 압박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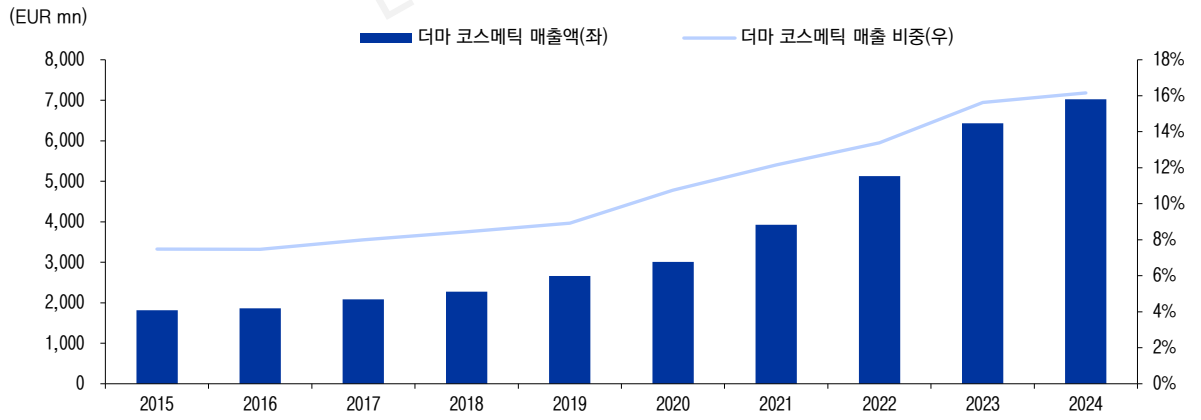
비용 측면에서는 유가 상승에 따른 물류 및 원부자재 가격 부담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국면. 유가가 배럴당 90~100달러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 약 9,000만~1억유로 수준의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언급되었으며, 이는 플라스틱 등 화장품 용기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 다만 동사는 단순 가격 인상보다는 제품 믹스 개선, 포맷 조정, 프로모션 효율화 등을 통해 마진 방어를 시도할 계획. 중동 지역 매출 비중이 3% 미만에 불과해 전쟁 영향은 제한적이며, 전반적으로 뷰티 수요의 방어력이 재확인되는 구간으로 판단

로레알: 1Q26 실적에서 읽히는 변화

1Q26 실적: 매출 성장률 YoY +6.7%, 시장 성장률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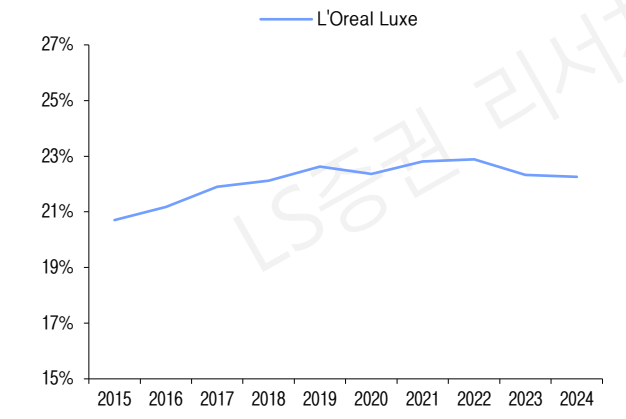
로레알의 1Q26 Like-For-Like 기준 매출 성장률은 +6.7%로 글로벌 뷰티 시장 성장률(약 +3.8~4.0%)을 상회하며 양호한 출발을 기록했다. 전 지역 및 전 사업부에서 점유율 확대가 동반된 가운데, 북미는 +7%대 성장으로 최근 2년 내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고, 유럽 역시 +4% 내외 성장으로 견조한 소비를 유지했다. 중국 시장은 +1~2% 성장으로 바닥을 통과하며 안정화 국면에 진입한 모습이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뷰티 수요는 지정학적 변수에도 불구하고 소비 둔화 없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구조적 성장 산업으로서의 특성이 재차 확인되는 구간이다.

그림1 **로레알 더마 코스메틱 부문 매출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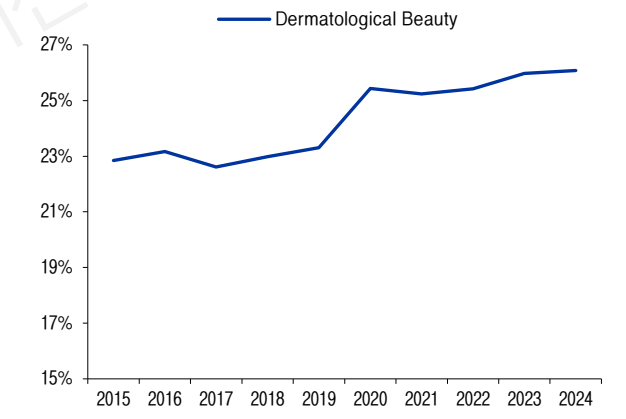
자료: L'Oreal,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로레알 럭셔리 부문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L'Oreal,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로레알 더마 부문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L'Oreal, LS증권 리서치센터

더마 카테고리 성과 두드러지는 중

카테고리별로는 스킨케어가 +4% 수준 성장하는 가운데 Dermatological Beauty 부문이 두자릿수 성장하며 전체 스킨케어 성장을 견인했다. La Roche-Posay, CeraVe, SkinCeuticals 등 더마 브랜드가 핵심 성장 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스킨케어 내에서도 기능성 및 더마 중심의 수요 집중이 뚜렷하다. 한편 메이크업에서는 립 제품 및 프래그런스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며 색조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유럽 지역은 는 '립스틱 효과'와 이른바 '도파민 소비'가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스트레스가 높은 환경 속에서 기분 전환을 위한 화장품 구매를 지속하는 모습이다.

유가 상승에 따른 마진 압박 가능성

비용 측면에서는 유가 상승에 따른 물류 및 원부자재 가격 부담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컨퍼런스 콜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90~100달러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 약 9,000만~1억유로 수준의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언급되었으며, 이는 플라스틱 등 화장품 용기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로레알 은 단순 가격 인상보다는 제품 믹스 개선, 포맷 조정, 프로모션 효율화 등의 전략을 통해 마진 방어를 시도할 계획이다. 이어 현재까지는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 패턴 변화는 관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비용 부담은 확대되는 반면 수요는 견조하게 유지되는 구조로, 가격 인상 여부는 향후 인플레이션 지속 여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동 지역 전쟁 영향 역시 일부 존재하나 매출 비중이 3% 미만에 불과해 전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되며, 전반적으로는 원가 부담 확대에도 불구하고 뷰티 수요의 방어력이 유지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표1 국내 소비재/플랫폼 주간 수익률

	현재가 (pt, 원)	시가총액 (억원)	수익률 (%)						P/E			P/B		
			1W	1M	3M	6M	12M	YTD	2025	2026E	2027E	2025	2026E	2027E
코스피	6,476	53,053,378	4.6	16.6	29.8	64.3	156.7	53.7	-	-	-	-	-	-
코스피 대형주	6,890	47,529,778	4.5	16.9	31.0	69.6	174.5	57.4	-	-	-	-	-	-
코스닥	1,204	6,669,216	2.9	7.4	21.1	36.3	65.8	30.1	-	-	-	-	-	-
코스피 중형주	5,014	4,356,134	5.8	16.0	23.5	34.5	79.0	34.7	-	-	-	-	-	-
코스피 소형주	2,967	1,117,755	2.3	8.0	14.9	19.4	34.9	17.8	-	-	-	-	-	-
유통														
코웨이	85,900	60,789	3.1	18.8	11.0	-7.3	8.7	-1.2	10.1	8.9	7.7	1.7	1.5	1.3
호텔신라	62,300	24,452	17.8	44.6	34.6	26.8	60.0	39.7	-17.3	33.4	19.8	2.1	2.0	1.8
BGF 리테일	134,500	23,247	0.8	9.8	14.8	30.3	30.3	28.3	12.4	10.8	9.9	1.8	1.6	1.4
GS 리테일	23,300	19,481	-0.4	13.9	10.4	33.9	62.9	15.9	13.2	10.3	9.1	0.6	0.6	0.5
롯데쇼핑	133,000	37,624	9.7	26.7	68.6	98.2	97.3	83.5	47.9	13.5	11.7	0.2	0.2	0.2
신세계	407,000	38,442	7.4	27.0	40.3	128.4	164.3	64.8	38.0	15.0	12.4	0.8	0.8	0.7
이마트	105,400	29,086	3.6	10.6	20.9	42.4	17.8	29.6	9.0	12.2	8.9	0.3	0.3	0.2
현대백화점	98,500	22,289	9.2	15.8	8.2	20.0	69.5	11.2	9.8	8.6	7.0	0.5	0.4	0.4
SK 네트웍스	5,680	12,569	4.6	8.8	21.0	22.9	33.7	25.7	23.5	20.7	17.1	0.6	0.5	0.5
인터넷														
NAVER	214,000	335,665	-1.2	0.2	-19.6	-13.4	11.8	-11.8	15.6	15.4	13.7	1.2	1.1	1.0
카카오	48,050	212,862	-3.9	-0.3	-21.2	-18.8	21.8	-20.1	39.6	32.4	26.0	2.0	1.8	1.7
게임														
크래프톤	274,500	130,130	4.2	16.1	15.1	-4.4	-27.1	11.6	14.8	12.8	10.9	1.6	1.5	1.3
넷마블	50,400	41,308	-2.3	-1.8	-2.7	-7.7	15.6	4.5	13.7	12.4	11.1	0.7	0.7	0.7
NC	270,500	58,277	3.1	24.4	19.2	32.9	83.1	34.2	16.2	15.8	13.7	1.5	1.4	1.3
펄어비스	57,000	36,621	5.4	40.1	29.7	62.9	71.4	52.4	-410.8	14.8	24.6	4.4	3.4	2.9
카카오게임즈	12,350	11,089	-0.7	-11.7	-17.7	-21.1	-12.8	-17.1	-8.2	-111.2	19.6	0.9	1.0	1.0
더블유게임즈	57,500	12,175	10.2	15.8	9.5	14.3	4.0	7.3	8.3	7.2	6.6	0.9	0.8	0.7
NHN	41,050	13,445	4.2	11.6	31.2	47.4	89.6	41.3	38.0	13.0	9.9	0.9	0.8	0.8
웹젠	12,310	4,259	-2.9	1.3	-2.8	0.7	-6.1	-4.6	14.8	10.0	8.4	0.6	0.5	0.4
컴투스	33,900	4,099	1.0	7.1	1.7	-3.4	-14.4	16.7	85.9	11.0	8.3	0.4	0.4	0.4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143,900	84,171	8.5	6.0	8.0	21.2	22.6	20.4	37.0	28.4	25.1	1.8	1.7	1.7
LG 생활건강	253,000	38,715	-0.8	1.2	-7.7	-10.9	-21.4	-2.1	35.0	34.0	21.0	0.8	0.8	0.7
실리콘투	48,800	29,852	3.6	25.1	-1.0	9.7	53.2	26.3	17.6	14.8	11.7	7.1	4.9	3.5
아모레퍼시픽홀딩스	30,100	23,014	8.1	8.5	4.7	19.4	38.7	12.1	18.5	n/a	n/a	0.8	n/a	n/a
한국콜마	91,600	21,622	5.5	17.1	37.3	21.8	21.3	47.5	20.9	14.6	12.2	2.5	2.1	1.8
코스맥스	227,000	25,763	6.3	17.3	17.1	11.3	33.8	39.3	44.7	18.1	15.1	5.1	3.9	3.2
브이티	16,950	5,923	5.1	12.2	-3.4	-33.5	-54.9	-3.2	9.9	12.1	9.3	n/a	2.0	1.6
코스메카코리아	86,000	9,185	1.3	6.7	6.0	26.7	84.2	29.1	18.7	14.1	12.1	3.5	2.8	2.3
씨앤씨인터내셔널	29,650	4,041	8.2	11.9	-8.5	-24.0	-8.1	0.0	18.0	19.1	12.3	1.9	1.0	1.0
클리오	13,410	2,423	8.3	12.8	2.1	-8.4	-27.4	2.9	17.6	11.7	11.2	n/a	0.9	0.9
한국화장품제조	10,280	2,329	6.6	15.6	4.5	-3.9	2.0	5.1	n/a	n/a	n/a	n/a	n/a	n/a
아이패밀리에스씨	11,170	1,935	-5.7	-2.4	-25.9	-38.9	-46.7	-18.2	8.0	7.9	6.7	1.7	n/a	n/a
마녀공장	16,390	2,687	23.5	38.0	14.9	2.8	-9.9	19.7	n/a	n/a	n/a	n/a	n/a	n/a

자료: Quanti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주: 2026.4.24 종가 기준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오린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	Buy (매수)	+15% 이상 기대	89.3%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15%로 변경
		Hold (보유)	-15% ~ +15% 기대	10.7%	
		Sell (매도)	-15% 이하 기대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5. 4. 1 ~ 2026. 3.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